



2021년 8월 22일(제1049호) 연중 제2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응답하는가?”

우리는 연중 제17주부터 제21주까지 요한 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어 들었습니다. 지난 복음 말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신 이야기와(요한 6,1-15), 사람들에게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가(요한 6,22-59)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고 감추어져 있는 아버지의 참된 뜻을 밝혀 주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요한 복음 6장의 맥락이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시키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나자렛 예수 1권) 예수님이야말로 결정적인 모세이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우선, 모세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위치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준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과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하듯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탈출 33,11; 신명 34,10),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재하면서 하느님의 선물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탈출 15,22-27; 17,1-7; 민수 20,2-13),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었으며(탈출기 16장),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느님과 생명으로 이끄는 율법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사명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였지만, 정작 하느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탈출 33,18-23) 모세가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 청하였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 주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네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탈출 33,22-23)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만나 역시 약속의 땅에서 소출을 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여호 5,12)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한계를 넘어서십니다. 요한 복음의 시작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본 적 없는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시고 하느님에 대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요한 1,18)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느님

께서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넬 수 있을 만큼, 함께 생활하실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느님의 신비가 이제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이들을 배불리신 기적만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내어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느님의 신비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 주시고 당신을 양식으로 내어 주시는 예수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쉬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한 6,42),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했고(요한 6,60)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요한 6,66)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역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요한 6,68-69)라고 말하지만, 훗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사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처럼 빵을 먹었다는 배부름과 만족이 앞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해 거부해하거나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신비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향하도록 노력합시다.



김승태(미디아) 신부
명필(15시턴) 상당 주임

제 1 특 시

여호 24,1-27.15-17.18ㄴㄷ

회 답 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특 시

에페 5,21-3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6,60ㄴ-69

영 상 제 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이혼 번째 시한

정병들이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자 그는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죽이게 하였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잘생겨 한 관리의 관심을 끌어 그의 하인이 되었다가 주인의 신임을 크게 얻고 그 집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다른 관리 하나가 이 관리를 방문하러 왔다가 이 달단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의 동료에게, 이 금지된 사람을 살려 주고 있으니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관리는 그 청년을 고발할 것이니, 우선은 연회를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이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는 앞날이 염려가 되어 마부에게 중대한 임무가 생겼다고 말하며 주인의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을 골라 안장을 얹어 놓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말이 준비가 되자 그는 말에 올라타고 한왕에게 황제의 배신과 동료 군인들의 불행한 운명을 알리러 백두산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분개한 한왕은 그의 10명의 아들 중 맏아들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이미 중국인들이 조선인들로부터 탈취한 요동의 수도 봉천(奉天, 즉 瀋陽)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왕자는 봉천에 도착하자 적의 숫자에 놀라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의 비겁함에 몹시 화가 나서 그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는 가족과 모든 신하를 이끌고 봉천 앞에 나타났습니다. 봉천시는 그에게 성문을 열어 주었고, 그는 봉천을 왕도(王都)로 삼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황제의 궁궐의 두 내관, 즉 왕과 ‘투’(Tou)라는 사람이 만력의 후계자인 승정(崇禎) 황제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그 자리에 다른 황제를 뽑아 앉혔습니다. 승정은 절망한 나머지 매산(煤山)의 한 나무에 그의 목을 매달고 죽었습니다. 이 나무는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매우 숭배합니다. 그들은 그 나무가 황제의 죽음으로 성화(聖化)되었다고 말합니다.

승정 황제 자리에 앉힌 사람은 ‘추앙왕’(Tchouang-wang, 闡王)으로 불렸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님과 함께

좀 떨어져 나와 보니
참, 어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님과 함께
머물러 보렵니다.

지금은 좀 쉬면서

혹, 그 자리에
돌아간다 해도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상화이야기

천국의 문



피렌체의 산 조반니 세례당 동쪽 출입구에는 로렌조 기베르티가 청동(핑장히 비쌌음) 부조로 제작한, 5m (4.5t)에 달하는 「천국의 문」 작품이 있다. (1425~1525년경 제작) 성경의 주요 장면을 뽑아서 제작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같다고 미켈란젤로가 부른 뒤, 천국의 문으로 불리고 있다.

북쪽 출입구는 세례자 요한의 생애의 장면에서, 동쪽 출입구인 본 작품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뽑아 제작하였다. 초기에 제작한 북쪽 문과 달리, 본 동쪽 문은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적 깊이와 사실감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사실감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뛰어나다.

▶ 동쪽 출입구 진채

여호수아가 나오는 장면 ◀

오늘 볼 작품은 여호수아가 예리코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상단에 얇은 부조로 군인들이 성문에서 피리를 부는 장면이, 중간 부분에는 지휘소(텐트)와 숲이, 그리고 전경에 여호수아 및 지도자들과 기타 인물들이 마치 3차원 조각품 처럼 깊은 부조로 제작되어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흥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1주일: 예성대 정현수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화상회의)
 때: 8월 24일(화) 16:00
-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화상회의
 때: 8월 26일(목) 10:30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2)’ 인니

- 네이버 오디오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미태 24,45)